



삼학도 사일로 발파 철거

1956년 들어선 목포 삼학도 내 한국제분 목포공장 철거작업이 1일 오후 시일로(기축사로 저장 창고) 14기 가운데 2기를 발파하면서 본격화됐다. 나머지 12기는 오는 10일 발파가 재개되며, 이 부지에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무더위와의 전쟁' 광주 소방본부 상황실 가보니

"별집 제거해 달라" "도로 물뿌려 달라"

여기저기 '폭염 SOS' 폭주

"아파트에 별이 날아 들어 무서워요, 빨리 와 주세요. 가게앞 도로가 녹아 지경이에요. 물을 뿌려주세요. 그러면 좋겠네요."

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광주 시소방본부 상황실 7명의 직원들은 긴장한 모습으로 쉴새없이 밀려드는 신고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대원들은 최근 폭염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응급상황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었다.

오후 2시15분 오광훈(43) 소방장에게 광산구 평동공단 인근에서 "별집을 제거해 달라"는 신고가 걸려왔다. 오 소방장은 곧장 전산망을 통해 남아 있는 생활민원구조반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미 모두 출동한 상황이었다. 오 소방장은 "대원들이 모두 출동을 나간 상황이라 예약을 하셔야 할 것 같다"며 시간과 장소를 확인했다.

이날 걸려온 신고 전화 대부분이 별집 제거 신고였다. 6~7월부터 이어진 별집 신고가 장마철이 지나면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별집별립까지 꾸려 오전 7시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신고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별집에 도로가 녹을 것 같아 살수차 동원을 조르는 경우도 있다.

오 소방장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현장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것이 소방관"이라며 "일부 대원들은 35도를 넘는 기온에도 옷을 감싸는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 나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 4시께에는 광산구 신가동 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 출동했던 대원들이 더위와 싸우며 불길을 잡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다행히 이날은 폭염환자 신고는 없었다.

확인해 현장에 출동 조치 시켰다. 최근 폭염 때문에 환자들의 상태가 더욱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같은 상황과 온열환자를 대비해 일부 구급차에는 냉방조리 등을 갖춰놓기도 했다. 곧장 옆에서는 남구에서 엘리베이터

같이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오늘은 신고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별집에 도로가 녹을 것 같아 살수차 동원을 조르는 경우도 있다.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최근 할 때까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에서 접수된 별집 제거 신고는

802건에 달했다.

20여 분 뒤 상황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전남대 정문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7명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이다. 신고자가 "7명 모두 경상"이라고 했지만 상황실 대원들은 구급차를 급히

/김인기자 kki@kwangju.co.kr

화순 38도 광주·전남 올 최고

8월 첫 날인 1일 광주·전남 지역에 폭염 환자도 계속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7명의 폭염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화순에서 70대 여성이 쓰러져 숨졌고, 지난달 29일 해남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탈진해 사망했다.

또 1일 여수엑스포에서는 K-POP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대기중이던 청소년 16명이 무더위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환관 2일 광주·전남 지역은 제10호 태풍 담레이(DAMREY, 중심기압 980hPa·중심부근 초속 31m)의 영향으로 5~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기자 kki@kwangju.co.kr

올해 광주·전남 1만5천명 전문대 수시 모집

올해 치러지는 2013학년도 전문대학 수시전형에서는 전국 138개 전문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15곳을 비롯한 137개교가 총 19만50783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광주·전남 대학들은 1만5000여명을 선발하며, 보건계열 인기학과는 수능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학대 총장)는 1일 각 대학의 2013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 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대학들은

16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 오는 12월 3일까지 전형을 마치고 12월 8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주요대학 인기학과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한다. 반영대학은 광양보건대(간호·물리치료·광주보건대(치위생·물리치료·간호·치기공 등)·기독간호대학(간호)·동강대(간호·임상병리·응급구조·서양대(간호·물리치료·치위생·임상병리 등)·순천체일대(간호)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물 05시 42분 해진 19시 35분

달辱 19시 23분 달진 05시 37분

비 소식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안에 비가 오겠다.

광주	흐림	26/34°C
목포	흐림	26/32°C
여수	흐리고비	26/30°C
나주	흐림	25/35°C
완도	흐림	26/32°C
구례	흐림	25/34°C
강진	흐림	26/32°C
해남	흐림	26/32°C
장흥	흐리고비	26/32°C
순천	흐림	24/33°C
영광	흐림	25/34°C
진도	흐림	26/31°C
전주	구름많음	26/35°C
군산	구름많음	25/34°C
남원	구름많음	24/34°C
흑산도	흐리고비	27/30°C

식중독자수 지역별자수 피부질환자수

비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다	북동~동	2.0~4.0m	02:17 07:33
	민비다	북동~동	2.0~4.0m	04:00 14:17	19:34
남해	서부	일비다	동~남동	2.0~4.0m	09:03 03:02
	민비다	동~남동	3.0~5.0m	21:41 15:0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날씨	25/34	25/35	25/35	25/33	24/32	23/32

다문화 청소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광주·전남 초·중·고 재학생 4135명

2배 가까이 늘어…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광주·전남지역에서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다문화 청소년'이 3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1일 호남지방경찰청이 발표한 '호남지역 201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 2308명에 불과했던 다문화 청소년은 지난해 4135명으로 늘어났다. 광주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이 909명(2008년 439명), 전남은 3226명(2008년 1869명)이었다.

지난 2000년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교통사고였지만 지난 2009년부터는 자살이 교통사고를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다. 2010년 자살한 청소년은 광주가 12.6명, 전남이 17.8명으로, 전남의 경우 전국 평균(13.0명)을 넘어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의 자살 생활률은 각각 20.

/김경기자 kki@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segistar.co.kr)

www.segistar.co.kr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225-5110

세기보청기 1층

전체면적 1,000평

주차장 100대

인근 대중교통

인근 대중교통